

제주지역 마을공동체 조사지표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회복력 평가지표 탐색*

현 혜 경**, 엄 미 경***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가 전개되어왔고 제주지역도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의 전개 양상은 시기마다 지역마다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지역을 사례로 하여 마을공동체 조사항목과 지표 변화를 분석하고, 분석결과 도출된 마을공동체 조사항목과 지표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체의 회복력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평가지표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 제주지역 마을공동체 조사지표 변화, 특히 그 조사주체와 기록방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조사의 주체가 되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자원을 발굴해 보존하며 여기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고 마을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마을공동체 조사항목과 지표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민 개개인의 삶과 행복을 위한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일종의 마을만들기이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조사지표와 회복력 평가지표 간 관계성을 파악해내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지역 회복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역 회복력, 평가지표, 제주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18S1A5A2A01039431). 또한 이 논문은 2019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교신저자)

I. 서 론

전통적인 지역개발 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거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지역의 위기와 충격이 증폭되면서 지역을 지탱해주던 각종 물리적, 제도적, 정신적 역량 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 유입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자율적 도전과 노력에 의한 마을만들기¹⁾와 경제다각화 활동 여부에 따라 농어촌 마을의 변화 양상은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성주안·송미령·정문수·민경찬, 2017: 1).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공동체²⁾의 회복력(resilience) 제고가 지역의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주지역을 보더라도 2006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역개발은 가속화되었고, 여기에 한국사회 전체의 탈(脫)도시화 흐름에 따른 인구 유입과 맞물리면서 제주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동하였으며, 마을공동체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 변화는 단순히 인구수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 제주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동하고 여러 사회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회현상이다. 최근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순유입이 순유출을 앞질러 증가세에 돌입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제주도 행정당국 차원에서 이주민 정착과 지역공동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엄미경, 2019).

실제로 2000년 이후 제주사회는 이러한 인구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제주의 마을공동체에서 물리적 공간의 분절뿐만 아니라 생활

1) 마을만들기는 일본의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라는 용어를 직역한 말로 지역 환경에 관심을 두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더해 가고 있다.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은 주민의 삶이 영위되는 일정 영역의 공간·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마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므로 그 활동의 주체성이 요구된다(황익주 외, 2016).

2) 공동체(communitiy)란 어떤 요소를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란 공동체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성원들이 동일한 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공통분모로 하여 형성되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지역성(territory),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s), 공동의 결속감(common ties)을 기본 요소로 갖는 지역공동체는 주민들 간 동질성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상정되는 공간적 실체의 범위가 매우 가변적이다(황익주·정규호·신명호·신중진·양영균, 2016). 가장 작게는 시골의 자연촌락이나 도시의 골목길을 사이에 둔 작은 구역 같은 것에서부터, 좀 더 크게는 시골의 군이나 소도시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까지를 아우를 수 있다. 한편, 공동체는 지역사회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학술적 논의에서 종종 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황익주 외, 2016). 이 논문에서도 이들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혼용해 사용한다.

공간의 분단, 각종 개발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소통창구는 거의 없고 마을공동체들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사회문제는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사회변동과 각종 개발 속에서 지역을 지탱해주던 각종 물리적, 제도적, 정신적 역량 면에서 한계에 직면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대응을 마을공동체 조사항목과 지표 변화 그리고 조사주체 및 기록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마을공동체 조사주체와 기록방식의 변화를 마을공동체의 소멸과 변화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대응전략, 즉 마을공동체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토대로 마을을 재생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II. 논의의 배경과 연구 범위

1.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을 둘러싼 연구쟁점

1970년대 초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주도로 시행한 새마을운동은 물질적 변화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의 고유 자원과 특성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부작용을 가져왔고, 이후 추진된 물리적 주거환경개선 중심의 각종 도시재정비사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거주자 중심,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현재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고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며 주민이 욕구하는 분야를 실천하는 마을만들기가 주목받게 된다(오완석, 2013).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은 주민의 삶이 영위되는 일정 영역의 공간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마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므로 그 활동의 주체성이 요구된다. 마을만들기는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는 활동이며, 그 과정에서 주민이 학습과 체험 등의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므로 만들어지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과정 만들기라고 해석되기도 한다(황익주 외, 2016: 195). 이것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며 편리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해 나가기 위해 공동의 장을 만들어 가는 방식을 포괄하며, 현재라는 지점에 발 딛고 서면서도 미래를 향하며, 미래에 도전하는 행위

로 꾸준함이 요구되는 작업이다(다무라 아키라, 2013: 60).

이러한 마을만들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를 배경으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 산업경제, 생태자원 등을 살리고 활용하는 데 마을만들기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도시재정비사업도 단순히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시설만을 공급하는 차원이 아닌 마을이라는 공간과 삶의 질을 높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의 자족성을 확립하는 지속가능한 재생사업으로 변모되고 있다(서태성, 2002).

한편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기존의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지역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며 생활하고 있는 자리를 재인식하여 지역에 맞게 살기 좋고 생기 넘치는 매력적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새로운 마을을 만들자는 기대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마을은 그대로 두어도 그럭저럭 형성된다는지, 누군가 남이 만들어주는 곳에서 주민은 수동적으로 그저 살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으나 마을만들기는 그것과는 다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관계를 맺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기본이 된다(다무라 아키라, 2013).

마을만들기는 행정 당국의 변화와 주민의 변화라는 두 가지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후자에 주목한다. 여관현(2013; 2015)에 따르면, 최근에는 주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가 마을만들기에 투영되면서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와 주거지 개선을 포괄한 종합적인 접근이 시도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 마을만들기 사례들은 대상 지역, 목적, 추진 주체, 공간 특성, 활동의 성격과 내용 등에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용연, 2004; 여관현·계기석, 2013). 더욱이 국내의 마을들은 지역마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및 관심 등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의 양상이 마을마다 달리 전개되는 것처럼 사회변동과 각종 개발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이 마을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마을공동체 조사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조사지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기록방식과 조사주체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마을공동체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과급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해 마을공동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

복하는 능력, 즉 회복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성요소와 회복력 평가지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들의 회복력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구성이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성장,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마을만들기가 마을 단위 주민운동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인데,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으로 마을만들기를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만들기는 주민들 간의 소통과 관계성 회복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적이나 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조정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자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여관현, 2015: 31).

마을만들기가 우리의 지역과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생활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개인과 지역의 잃어버렸던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가치변화와 사회적 관계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회복을 가능하게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만들기는 거주환경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만들어 인간환경에 적합하게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조정현, 2010).

제주지역에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2009년 제정되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2016년 설립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부처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대부분 지역에서 크고 작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열풍이 불었다. 제주는 마을만들기의 원형을 가장 잘 품은 지역으로 꼽힌다. 마을만들기의 현재적 의미를 되살리기 가장 적합한 곳이 제주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 소득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단계별로 보면, 의제 발굴 및 마을발전계획을 준비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1단계)에서 시작하여 공동체 사업 경험을 축적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마을(2단계),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마을(3단계), 중앙사업응모마을(4단계), 사후관리지원마을(5단계)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다. 여기서 중앙사업응모마을(4단계)부터는 3단계까지 마친 후 중앙사업을 응모 지원하여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내부자료, 2017).

마을만들기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모든 지역에서 전개되는 마을만들기 양상이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국내 지역들의 공간적 특성과 활동의 성격과 내용 및 참여주체의 생각과 태도 및 관심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시 마을자원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과 주민들 간 소통과 관계성의 차이로 연결되며, 사회변동과 각종 개발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대응역량 혹은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의 지속성과 공동체성의 회복은 주민 개개인의 삶과 행복을 위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주민 스스로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으며, 이것은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자원의 지속성은 물론 사회변동과 각종 개발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대응과 적응 역량의 강화로 연결된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이란 무엇인가? 회복력은 회복탄력성, 탄성, 탄력성, 극복력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며, 특정 외부충격이 발생한 이후에도 시스템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와 교란을 흡수하는 능력으로 정의 된다³⁾. 회복력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생태학 및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도시와 농촌, 지역공동체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최남희, 2015). 이 논문에서는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이해되는 회복력으로 번역해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회복력은 외부의 충격이나 위기로부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통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한다(Walker 외, 2004; 서지영·조규진, 2014: 160). 이 논문에서는 회복력을 단순히 이전의 성장궤도를 회복하는 것 자체보다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지역이 어떻게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구현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생태적 회복력(ecological resilience) 관련 연구들(Simmie & Martin, 2010; Pike et al., 2010; 정혜진, 2016: 259)에 주목해 지역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가는 지역의 적응력(adaptability)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생태적 회복력 개념을 사회생태계로 확장한 논의들은 이 논문에 일정한 시사점을 주는데,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회복력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동체 내부 요인들과 적

3) 회복력은 1970년대 초 외부 상황에 대해 원래의 상태를 지속하고자 하는 생태계 능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응용수학자인 홀링(Holling, 1973)의 연구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공학, 사회학, 도시계획, 재난관리, 심리학, 교육학, 간호학, 지리학, 경제학, 철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사용되어 왔다(정혜진, 2016: 258; 박진희, 2015: 101-102). 회복력은 “물질이 휘어지거나 압축, 혹은 늘림 상태로 변형이 일어난 이후에 원래의 모양이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공학적 개념에서 “도전적인 혹은 위협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과정이나 적응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사회과학적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었다(Palmboom-Willems, 2014: 277; 박진희, 2015: 102).

절한 관계형성, 즉 새로운 변화와 적응을 전제하는 것이고, 환경적 변화와 관련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적응과 변화가 회복력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회복력은 변화하는 환경과 함께 다양한 요구나 곤란한 상황이 주어질 때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Sage 외, 2014; 김예랑, 2018: 10-11).

이러한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관련해 회복력이 있는 지역사회를 ‘지역사회의 기능, 구조,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변화에도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지역사회’로 정의한 한상마·이명훈의 연구(2017: 4)가 일정한 시사점을 주었으며,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회복력을 지역공동체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생존, 적응, 진화, 성장을 통해 위험을 예상하고 충격을 억제하며 빠르게 복구하는 능력으로 보는 미국 CARRI(Community and Regional Resilience Institute, 공동체 및 지역 회복력 기구)의 논의(CARRI, 2013; 서지영·조규진, 2014: 160)가 유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 인식 하에서, 이 논문은 지역이 외부의 충격과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회복력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정은주, 2016; 한상마·이명훈, 2017), 외부환경의 변화와 각종 문제에 대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대응을 마을공동체 조사지표와 주체 및 기록방식의 변화에 주목해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의 회복력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은 마을공동체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관점에서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대응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조사주체와 기록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공동체의 회복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조사지표 변화와 회복력을 평가하는 지표와 구성요소를 탐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어왔고 제주지역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전개 양상은 시기마다 지역마다 그 대상과 추진주체, 활동의 성격과 내용 등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제주사회는 사회변동과 각종 개발 등 외부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마다 나름의 마을만들기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구성요소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마을공동체 조사지표 변화에 주목하는데, 이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마을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변화 및 관심과 참여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마을공동체 조사 항목과 지표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밖에 없다. 마을이라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하는 만큼 마을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을 기반으로 조성된다는 보편성이 있지만, 마을 단위가 처한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조사항목을 개발하는 경우 마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두 개의 요소를 담지해낼 수 있는 항목 개발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조사들을 분석하고 제주형 마을공동체 조사에 맞는 항목 요소들을 추려내었다. 이를 위해서 건입동마을회(2008), 난산리 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1999),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1991),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1988), 대정읍지편찬위원회(2014), 명월 향토지 편찬위원회(2003),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2012), 서귀포시 월평동(1992), 외도동 향토지 편찬위원회(2005), 용담동지 편찬위원회(2001), 우도지 편찬위원회(1996), 인성리마을회(1998), 제주특별자치도(201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2018), 해안동마을회(2018) 등을 참조하였다.

또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조사항목이 공동체의 회복력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위한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하기 때문에 우선 회복력과 관련된 기존 지표들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회복력 관련 마을공동체의 변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의 구성요소와 지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마을공동체에 대한 조사항목 구성을 위하여 제주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들과 조사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주마을공동체 조사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경향들을 분석하여 오늘날 제주마을공동체에 대한 조사지표 항목들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제주마을공동체 조사지표를 토대로 제주마을공동체의 회복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회복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후 이 연구에 반영하여 제주형 평

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III. 제주지역 마을공동체 조사지표 변화

1. 조사지표 구성의 변화

제주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체를 조사하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마을의 읍지 및 향토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마을 조사항목은 대체로 크게 자연환경과 인문·사회 환경으로 구분되며, 자연환경에는 위치, 면적, 기후, 지질과 지형적 특성, 동식물 등을 반영한다. 인문·사회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치 영역에서는 마을 행정의 변천 및 주요 행정기관들의 변천, 역대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영역에서는 마을의 인구(노동력 수), 세대수, 주요 개발사, 산업구조와 경제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영역에서는 마을단체(개발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및 활동 현황, 교육 및 교육시설 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 영역은 거의 대부분 역사와 민속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설촌, 지명, 마을관련 고문서·고문헌, 마을 관련 유적·유물, 설화, 전설, 마을인물, 종교 및 신앙, 의례, 민속 및 민구, 친목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제주마을공동체 기존 조사 공통 지표

대 분 류		중 분 류
자연환경		위치, 면적, 기후, 지질, 지형, 동·식물 등
인문 사회 환경	정치	마을행정변천, 주요행정기관들의 변천, 역대 마을대표 등
	경제	인구, 세대수, 주요 개발사, 산업구조, 경제활동 등
	사회	마을단체, 교육 등
	문화	역사 민속
		설촌, 지명, 고문서, 고문헌, 유적, 유물 등 설화, 전설, 인물, 종교, 신앙, 의례, 민속, 민구, 친목단체 등

이러한 형태의 조사지표는 해방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이 같은 조사지표의 구성은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주도해온 마을공동체 조사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경험이 그대로 해방 후 마을조사에 이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해방 후에도 자원 개발의 관점 및 마을의 명예를 드높인다는 전략 아래 지속되

어 왔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조사와 기록방식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들이 추가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기본적인 골조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다만 2017년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도시혁신사업인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마을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모색되면서 당연히 마을 조사 항목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지식인 및 마을 유지 중심의 위로부터의 조사항목 구성이 아닌 시민과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마을조사 항목 구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이 직접 찾아 작성하는 마을 기록뿐만 아니라, 증언식의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닌 생애사 중심의 주민구술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마을엽서와 같은 매개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정보를 수집하고 창조하는 형태로 나오면서 읍지와 향토지가 아닌 마을 소식지 형태의 마을 발간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동원은 기존의 유지 및 지식인 위주의 문헌기반 조사 지표 구성이 아니라,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에 의한 요소들을 조사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역사 재구성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과 관련하여 조사를 한다면 이전에는 문헌중심의 수도개발사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면, 현재는 생활에서의 물 사용 경험과 기억을 조사하여 공동체의 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구성하는 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공동체가 향유하고 있는 오감, 감정까지 마을공동체의 조사지표로 구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바람이 불 때, 어떤 일을 하지 않는지, 과일의 색깔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수확을 하는지, 가장 좋은 경관이 어느 지점인지 등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공유해왔던 오감과 감정까지도 조사지표에 할당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조사지표 구성의 변화는 현재 제주 마을공동체가 당면한 마을의 소멸, 변화, 재생과 연관이 있다. 현재 마을 공동체에 대한 조사지표는 마을공동체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토대로 마을을 재활성화 하려는 전략이 들어있다. 따라서 공간적, 시대적, 자원적 환경이라는 기본 구조 위에 문화다양성과 문화행위 등을 강조하는 조사지표가 부각되면서 <표 2>와 같이 마을공동체의 공간 원풍경 및 마을공동체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 최근 마을 조사 지표의 변화

분 야	주 제	내 용
마을 경관 원풍경	마을옛길	마을 옛길의 기록화
	주요장소	마을 주요 장소의 기록화
	주요건축	마을 주요 건축의 기록화
	생활공간	마을 생활 공간의 기록화
마을 공동체 생활사	의식주	마을 주민들의 의식주 기록화
	의례/민속	마을 주민들의 의례와 민속의 기록화
	생업	마을 주민들의 생업에 대한 기록화
	육아	마을 주민들의 육아에 대한 기록화
	교육	마을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록화
	마을명인	특별한 재능을 가진 마을 주민들에 대한 기록화

2. 조사주체 및 기록방식의 변화

마을공동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수집 항목의 변화 못지않게 수집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마을을 기록하는 방식은 이전의 종이에 기댄 아날로그적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기들이 동원되고 있다. <표 3>은 현재 마을을 기록하는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집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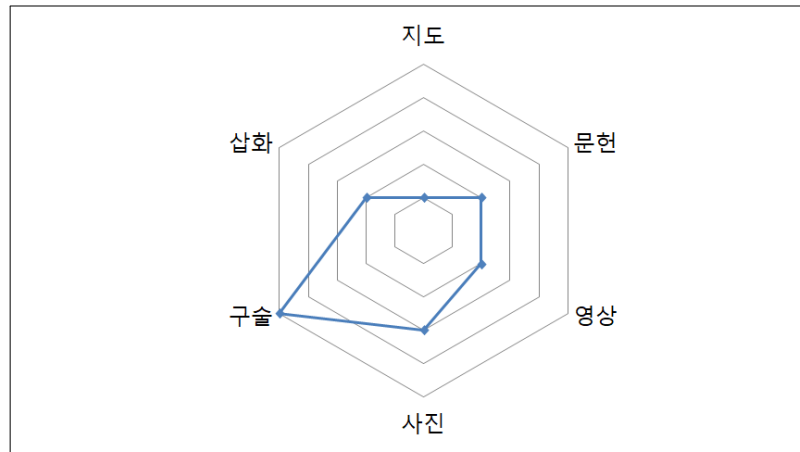
디지털 수집방식으로의 전환은 다양한 주민들로부터 얻은 날 것 그대로의 원형 자료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원형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는 유튜브, SNS 등에서 향유됨으로써, 이전 마을 조사 및 기록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향유되고 있는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표 3> 3차원적 디지털 마을 기록

분 야	수 집 방 식	시간적 수집
마을 경관 원풍경	GIS, CAD, 항공(드론)사진, 지적도, 구술사 등	1900~현재
마을 공동체 생활사	음성, 영상, 사진, 구술사 등	1900~현재

이러한 마을공동체 조사 및 기록 방식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상호 융·복합되면서 유기적인 효과를 산출하고 있으며, 마을 특성에 맞춰 어떤 기능들이 더 부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은 고문서와 기록사진이 많고 그 자료들이 마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수집하는 스캔이나 사진은 중요 기록방식으로 취급된다. 반면 문서와 사진이 별로 없고 구술에 의존하는 경우라면 음성, 영상, 사진 등의 기록방식이 동원되어 그 마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그림 1> 융·복합되는 마을공동체 조사 및 기록방식

이러한 장치들을 동원하여 현재 마을 조사 지표는 횡적·종적 연계성을 망라한 DATA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표 4> 참조). 이것은 마을 조사 지표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엎는다. 디지털 방식으로 인해 실줄 날줄을 엮어 잘 짜여진 마을 조사의 궤적을 만드는 토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표 4> 횡적·종적 연계성을 망라한 마을 DATA

유형 매체	경관원 풍경				생활문화원 풍경				최종결과물 정리	마을기록화
	마을 옛길	주요 장소	주요 건축	생활공간	의식주	의례/민속	생업	육아		
문헌	기존 마을지 전화번호 부 등	기존 마을지 등 전화번호 부	기존마을 지 등 전화번호 부	기존 마을지 농촌생활개 선사업보고 서 전화번호부	농촌생활 개선사업 보고서	기존 마을지 농촌생활 개선사업 보고서	기존 마을지 농촌생활 개선사업 보고서	농촌생 활개선 사업보 고서	문헌 자료의 정리	▶ 마을 주요 공간 및 생활사 문헌 정리
지도	지적도	지적도	지적도	-	-	-	-	-	공간의 재현	▶ 마을 문화지도 작성
영상	-	-	-	-	-	-	-	-	영상자료 정리 영상자료 생산	▶ 마을 영상 기록화
사진	항공(드론)사진	항공(드론)사진	항공(드론)사진	관련 사진 자료	관련 사진 자료	관련 사진 자료	관련 사진 자료	관련 사진 자료	사진자료 정리 현재의 기록화	▶ 마을 사진 기록화
삽화	-	-	-	-	-	-	-	-	삽화를 통한 재현	마을 삽화 기록화
구술사	지명 구술	장소 구술	건축 구술	생활공간 구술	의식주 관련 구술	의례 관련 구술	생업관련 구술	육아관 련 구술	주민구술사	▶ 마을 구술기록
▼ ▼ ▼ ▼ ▼ ▼ ▼ ▼ ▼ ▼										
분야별 마을 기록화	마을 옛길의 기록화	마을 장소의 기록화	마을 건축의 기록화	마을 생활공간의 기록화	마을 의식주의 기록화	마을 의례의 기록화	마을 생업의 기록화	육아의 기록화		

따라서 오늘날 마을공동체 조사지표는 마을의 변화와 재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과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연유산, 역사유산, 생활유산 등으로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표 5>는 서귀포시 월평마을 공동체의 조사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변화에 놓여 있는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을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표 5> 서귀포시 월평마을 공동체 지표 조사

구 분	지 표
자 연 유 산	풍수자원과 지명자원
	물 자원
역 사 유 산	선사유적과 유물자원
	고문서/고문헌자원
	궤 기록자원
	돌비석자원
	역사인물자원
	건축자원
	의례 및 신앙 자원
생활문화유산	길과 돌담자원
	전래농기구 및 민구자원
	근대사진 자원
	구술생애자원
	오감자원

자료: 제주연구원(2019)에서 추출하였음.

따라서 기존 마을공동체 조사지표와 새롭게 대두되는 조사지표 속에서 변화 및 회복력과 연결하여 제주지역 마을공동체 조사지표는 <표 6>과 같이 30개가 구성될 수 있다.

<표 6> 회복력 관련 마을공동체 조사지표

번호	지 표	
1	위치와 면적	마을의 위치와 면적에 변화가 생겼는가?
2	기후	마을의 기후에 변화가 생겼는가?
3	지질과 지형	마을의 지질과 지형에 변화가 생겼는가?
4	동식물	마을의 동식물에 변화가 생겼는가?
5	마을행정	마을의 행정구역 및 행정체제가 변화하였는가?
6	주요행정기관	마을의 주요 행정기관들이 변화하였는가?
7	인구와 세대수	마을의 인구 및 세대수에 변화가 생겼는가?
8	개발	마을의 개발로 인한 변화는 무엇인가?
9	산업구조	마을의 산업구조에 변화가 생겼는가?
10	경제활동	마을주민들의 생업 및 경제활동에 변화가 생겼는가?
11	마을단체	마을 단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2	교육	마을주민의 교육 및 교육활동에 변화가 생겼는가?
13	지명	마을의 지명들에 변화가 생겼는가?
14	유적 및 유물	마을의 유적 및 유물에 변화가 생겼는가?
15	설화 및 전설	마을의 설화 및 전설이 새롭게 생긴 것이 있는가?
16	종교 및 신앙	마을주민들의 종교 및 신앙활동에 변화가 생겼는가?
17	생활의례	마을주민들의 일생의례 등에 변화가 생겼는가?

18	생활민속	마을주민들의 민속에 변화가 생겼는가?
19	생활민구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도구에 변화가 생겼는가?
20	친목단체	마을주민들의 자생적 친목단체에 변화가 생겼는가?
21	마을 길	마을 길들에 변화가 생겼는가?
22	주요장소	마을의 주요 장소들이 변화하였는가?
23	주요건축	마을의 주요 건축들이 변화하였는가?
24	생활공간	마을주민들의 생활공간들이 변화하였는가?
25	의식주	마을주민들의 의식주가 변화하였는가?
26	육아	마을주민들의 육아방식이 변화하였는가?
27	마을명인	마을 명인들은 누구인가?
28	오감	마을 주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오감이 사라지고 있는가?
29	감정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감정에 변화가 있는가?
30	정체성	마을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변화가 생겼는가?

전체적으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을 조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조사지표는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변동 앞에 놓인 현 마을들의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IV.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회복력 평가지표 탐색

1. 마을공동체 회복력 구성요소

회복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회복력의 연구 분야와 개념 정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 논문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탄력성 진단과 활용방안을 다룬 하수정(2016)과 지속가능한 도시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정은주(2016)의 연구가 있다. 하수정(2016)은 회복력 개념을 경제적, 지역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의 진단과 활용방안 연구에 적용하였다. 정은주(2016)는 회복력 개념을 적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방안으로 물리·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조직적 측면의 요소, 대응책 간 상호 연계 및 포괄적인 회복력 개념이 적용될 때 실행가능하다고 본 점에서 일정한 평가를 내리고, 각 영역별 회복력 개념을 적용하는 기준과 목표 설정, 세부적인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과 더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험적 사례지역 제시를 통해 실행과 관련된 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외에 김예랑(2018)의 연구가 수용한 Sage 외(2014)의 회복력에 대한 정의, 즉 변화하는 환경과 함께 다양한 요구나 곤란한 상황이 주어질 때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회복력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 논문의 회복력 구성요소를 선정하는 데 시사점을 주었다⁴⁾.

이들 연구와 함께 기존 연구들에 대한 분석하고 검토하여 회복력의 구성요소를 정리한 최남희의 연구(2015)는 이 논문에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회복력 구성요소를 선정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최남희(2015)는 전대옥(2015), 하수정(2015), 서지영(2015), Bonstrom 외(2014)를 참조하여 회복력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는데, 이를 지역공동체의 회복력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지역공동체의 회복력 구성요소

구성 요소	주요 의미 및 관련 요소	지역개발 관련 요인/행동
견고성·적응성 (robustness)	- 충격을 흡수하며 완화하고 견뎌내고 적응하는 역량, 저항성 - 관련된 요소: 가외성, 자원동원 역량	정보공유,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신뢰성과 결속력, 협력네트워크, 지역경제의 자족성과 다양성
가외성·대체성 (redundancy)	- 충격으로부터 손상된 기능을 대체하는 여력, 인적, 물적 대응자원의 여력 - 관련된 요소: 자원동원 역량, 신속성	지역의 자원 및 인프라의 잉여용량, 대체시스템의 구축과 비축, 예비비 등의 예산
신속성(rapidity)	- 충격에 따른 피해 확산, 붕괴로 인한 기능손실을 최소화하고 최악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최단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회복률 - 관련된 요소: 자원 동원 역량, 예비능력	의사결정 및 지원, 정책 타이밍, 정보공유와 갈등관리
자원역량·융통성 (resourcefulness)	- 위기나 충격에 대한 현상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과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대안탐색과 의사결정 등 대응 역량을 스스로 조직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조해낼 수 있고, 위기로 인한 시스템의 상태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솔루션, 창발적 대응 역량 - 관련된 요소: 가외성, 견고성, 자원의 양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훈련 및 협력네트워크, 사회적 신뢰관계와 거버넌스, 연구개발 역량 및 지역혁신체계

자료: 최남희(2015: 166)에서 재구성.

4) 이외에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분석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회복력에 접근한 한상미·이명훈(2017)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도시 일반에 대한 지표를 구성한 관계로 마을공동체 회복력의 구성요소와 평가지표 탐색에 관심이 있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지역이나 마을공동체의 회복력 구성요소와 관련해, 기존 연구들에서 지역의 회복력은 충격에 노출되는 규모와 빈도를 나타내는 취약성이 낮고, 충격에 맞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인 적응력이 강할수록 높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영국의 ARUP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도시회복력 프레임워크(City Resilience Framework)’에서는 회복력 있는 시스템의 질적 구성요소로 성찰성, 견고성, 가외성, 유연성, 자원동원성, 수용성, 통합성 등 7개 요소를 들고 있고(Silba, 2014: 5), 전대욱(2015)과 하수정(2015)은 O’Rourke(2007)가 주장한 R4 프레임워크인 견고성(robustness), 가외성(redundancy), 신속성(rapidity), 자원역량(resourcefulness)을 채택하고 있다. Grosvenor(2014)는 취약성과 적응력, 회복력의 상호작용 관계를 강조하는데, 적응력이 도시의 경제성장, 기술개발, 종교, 공공의 압력과 로비, 그리고 정부의 속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취약성 또한 충격의 규모와 빈도에 따라 때로는 매우 급하게 변화하기도 한다고 보았으며 시행착오에 의해 적응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연구들과 최남희의 연구(2015)에서 구성한 회복력 구성요소를 제주 마을공동체 회복력 구성요소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마을공동체 회복력 평가지표 탐색에 활용한다.

2. 마을공동체 회복력 평가지표 탐색

제주의 대부분 마을들 대부분에서 마을만들기 열풍이 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지역의 경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2009년 제정되고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으로 참여를 촉진하고 마을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시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4조에 근거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2016년 만들어져 마을공동체 회복 및 마을사업의 지속 유지에 역점을 두면서 마을만들기를 지원해오고 있다.

제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은 마을 단위에 정착한 국내 이주민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서 마을공동체 회복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고, 마을과 행정 및 전문가 간의 유기적 관계 유지를 기반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주민들 간 원활한 소통과 자발적 참여에 역점이 두어지게 된다⁵⁾.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며, 마을만들기의 목적은 마을의 공동체성을 형성하여 그 공동체의 자치·협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그 대상은 이웃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단위이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를 공동체의 회복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jumaetul.or.kr/default/index.php?cid=8>)를 참조 바란다.

과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⁶⁾.

이때 마을공동체 회복력의 향상에는 무엇보다 사회적 학습능력의 강화, 지역공동체의 자기조직화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자기조직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의 위험에 대응하는 학습능력을 갖추는 것, 공동체 나름의 위기 대응 해결책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박진희, 2015).

마을공동체의 회복력에 기초한 외부환경에 대한 공동체의 관리·대응전략은 사회의 물적 기반, 즉 주요 기반시설의 견고성과 대체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물적, 인적, 경제적 자원들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조직과 문화, 정치 차원에서의 견고성, 대체성, 융통성, 신속성 향상을 통해 사회의 위험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에 분산하고 있는 조직들 간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체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문화의 회복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될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어 마을공동체 외부로부터의 위험이나 위기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회복력 관련 마을공동체 조사지표를 나타낸 <표 6>과 <표 7> 지역공동체의 회복력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회복력 평가 지표를 나타내면 <표 8>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8> 마을공동체 회복력 평가 지표

번호	마을공동체 조사 지표		회 복 력
1	위치와 면적	마을의 위치와 면적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2	기후	마을의 기후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3	지질과 지형	마을의 지질과 지형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4	동식물	마을의 동식물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5	마을행정	마을의 행정구역 및 행정체제가 변화하였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6) 이와 관련해 박진희(2015)는 현대사회 환경 위기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시민의 책무와 권리를 실천하는 새로운 시민들은 현대사회가 회복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주지역 마을공동체 조사지표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회복력 평가지표 탐색

6	주요행정기관	마을의 주요 행정기관들이 변화하였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7	인구와 세대수	마을의 인구 및 세대수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8	개발	마을의 개발로 인한 변화는 무엇인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9	산업구조	마을의 산업구조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10	경제활동	마을주민들의 생업 및 경제활동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11	마을단체	마을 단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12	교육	마을주민의 교육 및 교육활동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13	지명	마을의 지명들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14	유적 및 유물	마을의 유적 및 유물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15	설화 및 전설	마을의 설화 및 전설이 새롭게 생긴 것이 있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16	종교 및 신앙	마을주민들의 종교 및 신앙활동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17	생활의례	마을주민들의 일생의례 등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18	생활민속	마을주민들의 민속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19	생활민구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도구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20	친목단체	마을주민들의 자생적 친목단체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21	마을 길	마을 길들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22	주요장소	마을의 주요 장소들이 변화하였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23	주요건축	마을의 주요 건축들이 변화하였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24	생활공간	마을주민들의 생활공간들이 변화하였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25	의식주	마을주민들의 의식주가 변화하였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26	육아	마을주민들의 육아방식이 변화하였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27	마을명인	마을 명인들은 누구인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28	오감	마을 주민들의 향유하고 있는 오감이 사라지고 있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29	감정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감정에 변화가 있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30	정체성	마을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변화가 생겼는가?	① 견고성·적응성 ② 가외성·대체성 ③ 신속성 ④ 자원역량유통

마을공동체의 회복력 향상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민성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위험이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여기에 행정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될 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박진희, 2015).

마을공동체의 회복력 평가는 제주다움이 상실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표 조사가 제주의 변화와 변동을 함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IV. 결 론

최근 국내 지역들에서는 그동안 추구해오던 성장과 발전 중심의 지역개발 패러다임 대신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성과 지역이 얼마나 빨리 외부의 충격과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는가를 중시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 회복력 있는 지역이란 지역의 기능, 구조,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변화에도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지역이다(한상미·이명훈, 2017: 4). 자연 및 산업재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을 비롯한 환경문제, 경제적 충격,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태 등 지역 내·외부의 지속적인 변화에 적절히 적응·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회복력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한편, 마을만들기는 2010년 초반부터 지역 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하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 접근의 하나로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마을만들기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회복이다(정재희, 2012).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제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의 여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제주지역들도 공동체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를 비롯해 국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마을만들기가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양상과 결과가 나타나고 외부환경의 변화와 충격에 대한 마을의 대응 양상도 다를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대응역량과 회복력에 관심을 갖고 마을공동체 회복력의 구성요소와 평가지표의 탐색을 시도하였다. 특히, 제주지역 마을공동체 조사항목과 지표 변화에는 외부의 충격과 위기, 소멸가능성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 노력이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공동체 조사주체와 기록방식의 변화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분석한 마을공동체 조사항목과 지표에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의 회복력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지역 마을공동체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 제주지역 마을공동체 조사

지표의 변화, 특히 조사주체와 기록방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조사의 주체가 되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자원을 발굴해 보존하고 여기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고 마을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움직임을 마을공동체 조사항목과 지표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민 개개인의 삶과 행복을 위한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일종의 마을만들기이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조사지표와 회복력 평가지표 간 관계성을 파악해내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회복력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제주의 마을공동체 회복력 평가를 위한 구성요소와 지표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연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마을공동체 조사 항목과 마을공동체 회복력 지표로의 연계에서 제외되거나 강조, 추가되는 항목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마을공동체 회복력 지표를 실제 마을공동체 회복력 조사로 연계시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들의 회복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과제이기도 하며, 제주지역 마을공동체들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최근 지역 회복력에 대한 연구는 회복력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사회적 산출과 정치적 의사결정,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사회적 혁신까지도 포괄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연구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 위기나 충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의 구조와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회복력 개념을 지역사회와 지역정책에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취약성 지수와 회복력 지수를 통해 지역의 회복력을 진단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건입동마을회, 2008, 『건입동지』.
- 김예랑, 2018,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가족이야기’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연구: 회복탄력성의 7개 하위영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1, 5-34.
- 난산리 향토지 발간추진위원회, 1999, 『난산리지』.
-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1991, 『온평리지』.
-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1988, 『가스름』.
- 대정읍지편찬위원회, 2014, 『대정읍지』.
- 명월향토지 편찬위원회, 2003, 『명월향토지』.
- 박진희, 2015, 「재난 위험 사회의 위험 관리전략의 새로운 모색: 회복탄력성과 시민성 향상을 중심으로」, 『환경철학』 19, 91-118.
-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2012, 『의귀리지』.
- 서귀포시 월평동, 1992, 『월평마을』.
- 서지영·조규진, 2014,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STEP1 Insight』 147, 1-32.
- 서지영, 2015, 「회복력의 구성요소와 실행방향」, 『국토』 2(통권 400호), 11-16.
- 서태성, 2002,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성주인·송미령·정문수·민경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방향(2/차년도)』, 생각섬표휴먼컬처아리랑.
- 신우열·최민아·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요인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3), 43-81.
- 여관현, 2013,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소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1), 135-170.
- _____, 2015, 「주민학습과 실찬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연구」, 『지방정부연구』 19(3), 29-51.
- 여관현·계기석, 2013,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 『도시행정학보』 26(4), 241-270.
- 염미경, 2019, 「제주 이주와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대응」, 『제주도연구』 51, 181-217.
- 오완석, 2013,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3(2), 104-125.
- 외도동 향토지 편찬위원회, 2005, 『외도동 향토지』.
- 용담동지 편찬위원회, 2001, 『용담동지』.
- 우도지 편찬위원회, 1996, 『우도지』.
- 이용연, 2004,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한국도시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7-50.

- 인성리마을회, 1998, 『인성리향토지』.
- 전대옥, 2015, 「지역공동체 회복력의 개념과 적용방안」, 『국토』 2, 1-25.
- 정은주, 2016,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리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4), 87-108.
- 정혜진, 2016, 「경제위기와 지역의 경제적 탄력성」, 『지방행정연구』 30(4), 255-288.
- 전라남도청 제주도, 1924, 『미개의 보고 제주도』.
- _____, 1928, 『제주도 개세(미발간)』.
- 조선총독부, 1929, 『제주도생활상태조사』.
- 제주연구원, 2019, 『서귀포시 월평마을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활용 계획 수립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2017, 『구좌읍역사문화지』.
- _____, 2018, 『일도1동 역사문화지』.
- 최남희, 2015, 「새로운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회복탄력성의 요소와 인과순환적 원형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6(4), 155-178.
- 최우혁, 2017,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주체별 역할 중요도 분석을 통한 수법 개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하수정, 201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방안」, 『한국지역정책학회 2015년도 제4차 지역정책 포럼』, 27-45.
- _____, 20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방안 연구」, 『국토』 28(4), 87-108.
- 하수정·남기찬·민성화·전성제·박종순, 20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한상마·이명훈, 2017,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3), 1-24.
- 해안동마을회, 2018, 『해안동지』.
- 황익주·정규호·신명호·신중진·양영균, 2016,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현실·운동·과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다무라 아키라, 강혜정 역, 2013, 『마을만들기의 발상』, 도서출판 소화.
- Bonstrom, H., & Corotis, R. B., 2014, First-order reliability approach to quantify and improve building portfolio resilience,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C4014001.
- CARRI, 2013, *Definition of Community Resilience: An Analysis A CARRI Report*.
- Grosvenor, 2014, *Resilient cities: a Grosvenor research report* (<http://www.grosvenor.com>).
- Holling, C. S., 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s*, 4: 1-23.
- Martin, R., 2010,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hysteresis and recessionary shock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2(1): 1-32.
- O'Rourke, T., 2007, Critical Infrastructure, Interdependence, and Resilience, *The Bridge*,

no.37(1): 22-29.

- Palmboom, G., Willems, D., 2014, Dealing with Vulnerability: Balancing Prevention with Resilience as a Method of Governance, in A. Hommels et. al. (Eds.), *Vulnerability in Technological Cultures.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d Governance*, 267-284, Cambridge, MA: The MIT Press.
- Sage, D., Sircar, I., Dainty, A., Fussey, P., and Goodier, C., 2014, Understanding and enhancing future infrastructure resiliency: a socio-ecological approach, *Disasters*, 39(3): 407-426.
- Simmie, J., & Martin, R., 2010, The economic resilience of regions: Towards an evolutionary approach,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 27-43.
- Walker, B., C. S. Holling, Carpenter, S. R., and A. Kinzig, 2004, Resilience, adaptability and transformability in social-ecological systems, *Ecology and Society* 9(2): 5. [online] URL: <http://www.ecologyandsociety.org/vol9/iss2/art5/>

Abstract

Exploration of Community Resilience Evaluation Indicators Using Jeju Community Survey Indicators

Hyun, Hye-Kyung*·Yeum, Mi-Gyeong**

Since 2000, various types of community planning have been carried out in most regions nationwide, with community planning projects being carried out in earnest, and the Jeju area has experienced the same process. However, the development patterns of these community planning vary from time to time and region to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survey items and indicators of village communities in Jeju, and to select resiliency components of village communities and explore evaluation indicators by using the Jeju community survey items and indicators. In this paper, we wanted to analyze the survey items and changes in the indicators of the village community in Jeju, selects the elements of resilience in the village community and explore the evaluation index by using the changed village community survey items and indicators derived from the analysis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community resilience.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is pap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urvey items and indicators of village community in Jeju area, especially the subject and the recording method. Changes in the survey items and indicators of the village community were seen by residents to become the main body of the survey, and the residents themselves were to discover and preserve the history and resources of the community, to place new values on it,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village through joint efforts. This is the creation of a kind of village that seeks to restore communities for the lives and well-being of individual residents and can be understood as an effort to revitalize the village communit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vey indicators of the village community and the resilience evaluation indicators, and to investigate and research the community resilience of the region in order to create a sustainable village community.

* Senior Researcher, Jeju Research Institute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제주지역 마을공동체 조사지표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회복력 평가지표 탐색

Key Words : local community, community planning, community resilience, evaluation indicators, Jeju.

교신 : 염미경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E-mail: mgyeum@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20. 01. 16

심사완료일 : 2020. 02. 01

게재확정일 : 2020. 02. 07